

화장품 정리함부터 LED조명까지... '화장대테리어' 확산

(화장대+인테리어)

카카오스타일

관련 상품군 거래액 104% 증가
화장품 정리함 매출 371% 상승
조명 533%, 정리대 274% 급증

책상을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열풍이 화장대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화장대를 인테리어 요소로 꾸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새해맞이 집 꾸미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1030 여성을 중심으로 '화장대테리어(화장대+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데스크테리어(데스크+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장된 형태로,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한 1030 세대의 개성 중시 소비 성향과 맞물려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화장대·조명·화장품 정리함 등 관련 상품군의 검



옛지영의 '뚜껑있는 냉장고형 화장품 정리함', 루시아의 '심플 접이식 LED 조명 거울', 엘로롱키 '이동식 모듈 트롤리' 상품. /카카오스타일



색량과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화장대의 검색량과 거래액은 각각 146%, 104% 증가했으며 화장품 정리함은 148%, 371% 상승했다. 또한, 화장대 조명과 이동식 화장품 정리대(트롤리)의 같은 기간 거래액이 각각 533%, 2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30 여성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대표 인기 상품으로는 인

테리어 소품 브랜드 '옛지영'의 '뚜껑있는 냉장고형 화장품 정리함'이 있다. 이 제품은 대용량 냉장고 형태로 제작돼 실용성을 강조하며, 화장품 종류에 맞춰 최적화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인테리어 브랜드 '루시아'는 '심플 접이식 LED 조명 거울'을 인기 상품으로 선보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컬러 및 밝기 조절이 가



능하며, 스탠드형 접이식 구조로 제작돼 원하는 장소에서 세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리츠 디자인의 바구니와 단단한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제작된 엘로롱키의 '이동식 모듈 트롤리'도 인기 상품군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화장대테리어'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개성을 중시하는 1030 세대의 소비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뷰티 유

튜브와 브이로그에서 다양한 형태의 화장대 연출이 소개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대는 뷰티 유튜브 콘텐츠와 브이로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요소"라며 "실제 1030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패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스크테리어'에 이어 '화장대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업계가 화장품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뷰티 제품 수요가 늘자, 관련 시장인 뷰티 가구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소비자 김 모 씨(29)는 "최근 새해나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화장품 세일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관련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며 "그렇게 화장품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 이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정리함이나 수납 제품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쿠팡, 동계아시아게임 집관족 기획전

'대한민국 응원을 위한 슈퍼 세일' 가전·디지털 기기에 간식도 준비

쿠팡이 대한민국 스포츠팀의 선전을 지원하며 이달 13일까지 '대한민국 응원을 위한 슈퍼 세일' 기획전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집에서 동계 스포츠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제품군은 물론, 겨울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데 필요한 여행 상품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가장 먼저, 집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전·디지털·응원 용품 코너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LG 올레드 4K 초고화질(UH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TCL 안드로이드12 퀀텀닷(QD)-미니 발광다이오드(LED) 4K TV ▲LG전자 2025 그램 등 상품이 포함됐다. 또한, 응원봉, 머리피, 태극기 등 다양한 응원 용품도 준비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간식 및 식탁 차림 코너도 운영한다. ▲잭링크스 비프 스틱 오리저널 육포

▲구룡포 건조 반건오징어 ▲봉지 과자 20종 세트 등을 포함해 즉석식품, 밀키트, 무알콜 맥주, 마른안주류 등 식품을 선보인다. 술잔, 테이블, 의자 등 식탁 차림에 필요한 상품도 함께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대한민국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동시에 직접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남은 겨울 동안 쿠팡과 함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GS리테일, 소포장 냉동 간편식 출시

오리지널 핫도그·불고기버거 등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고물가에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겨냥해 '소포장 냉동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GS더프레시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기존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대용량·묶음 구성과 달리, 날개 포장 형태로 출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GS더프레시 측 설명이다.

출시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 구성됐다. 출시 일정은 핫도그와 피자가 이달 11일, 햄버거 2종이 이달 18일이다.



GS더프레시에서 브랜드 관계자가 신상 냉동 간편식 상품을 들고 있는 모습. /GS더프레시

특히, 냉동 핫도그는 일반적으로 5~6개입 묶음으로 판매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출시됐다. 햄버거는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제품군으로 새롭게 기획했다. 피자 역시 1인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7인치 크기로 줄였으며, 2개를 개별 포장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CU, 밸런타인데이 맞아 '주류 할인전'

200ml 양주 3종 40% 가량 할인

편의점 CU는 다가오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 가족간 달콤한 분위기를 즐기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규모 주류 할인전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밸런타인데이는 연중 편의점 매출이 가장 높게 뛰는 행사 중 하나로 기념일을 맞아 초콜릿 등 선물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주류의 매출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작년 CU의 밸런타인데이 기간 전체 주류 매출을 살펴 보면, 행사 기간 일주일(2월8~14일)만에 전주 대비 매출이 35.3%나 증가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양주가 51.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와인 37.0%, 전통주 26.9%, 기타 주류(하이볼 등) 15.6% 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CU는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다양한 주류 할인전을 준비했다. 먼저 이달 14일까지는 발렌타인 양주 7종을 할인 판매한다. 200ml



편의점 CU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대규모 주류 할인전을 펼친다. /BGF리테일

소용량 발렌타인 양주 3종(발렌타인 7년, 10년, 파이니스트)은 정가 대비 최대 40% 가량 할인해 업계 최저가인 7900~9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와 초콜릿을 결합한 프로모션들도 진행한다. 달콤한 포트 와인은 페레로로쉐 5입과 함께 구매하면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행사 상품은 포르투갈산 포트 와인 중 인기 제품인 발도우로 포트 와인 2종이다.

또, CU는 최근 사케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처음으로 사케 기획전도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백화점 스마트가전 마케팅 강화

신세계백화점이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스마트 가전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즐기는 50~60대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가전 제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그중 로봇청소기·식기세척기 등 모바일 원격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전 매출이 159%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시니어 고객층의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30세대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1.5%인 반면,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같은 기간 218.7% 증가했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0일 본점 신관 7층에 로봇 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의 정규 매장을 오픈한다. 매장 오픈을 기념해 로봇청소기 및 습식청소기 제품을 최대 25만원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현대그린푸드, 구내식당 혼잡도 실시간 확인

전용 앱 'AI 피플카운팅' 제공

현대그린푸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도입하며 단체급식업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AI 기술을 활용해 구내식당 혼잡도를 자동 측정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AI 피플카운팅'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AI 피플카운팅은 구내식당 입구에 설치된 AI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인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현대그린푸드의 구내식당 정보 알림 앱 'H-카페테리아'로 혼잡도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개발은 그룹 내 ICT 전문기업 현대퓨처넷이 담당했다.

특히 5개 이상 복수 코너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혼잡도 현황도 동시에 파악해 알려줄 수 있어 고객사 직원들은 앱을 통해 대기줄이 적은 코너를 선택해 배식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코너별 잔여 수량 확인, 좌석 현황 알림 등의 추가 기능을 개발해 H-카페테리아 앱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구내식당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단체급식 사업뿐 아니라 전 사업분야에서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식품업계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